

##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0문제)-----1쪽
- (2) 글로 쓰는 나의 꿈 (21문제)-----7쪽
- (3) 시각 상과 촉각 상 (47문제)-----16쪽

###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 (1) 향수 (54문제)-----38쪽
- (2) 장마 (56문제)-----62쪽
- (3)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44문제)-----98쪽
- (4) 한 그루 나무처럼 (35문제)-----129쪽

###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38문제)-----149쪽
-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32문제)-----170쪽

###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 (1) 음운의 변동 (63문제)-----190쪽
- (2) 우리말 바로 쓰기 (75문제)-----214쪽
-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20문제)-----240쪽

◆빠른 전체 정답-----254쪽

◆해설-----25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향수” 분석 정리

## ◆핵심 정리

<b>갈래</b>	자유시, 서정시	<b>성격</b>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b>제지</b>	고향		
<b>주제</b>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구사함.</li> <li>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묘사함.</li> <li>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주제를 강조함.</li> </ul>		

## ◆구성

<b>1연</b>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
<b>2연</b>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b>3연</b>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b>4연</b>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b>5연</b>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정경

### 1. 작품의 배경과 시적 대상

	배경	시적 대상
<b>1연</b>	넓은 벌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b>2연</b>	겨울밤, 방 안	늙으신 아버지
<b>3연</b>	풀섶(풀숲)	어린 시절의 ‘나’
<b>4연</b>	들판	어린 누이, 아내
<b>5연</b>	가을밤, 방 안	가족들

### 2. 작품에 쓰인 감각적 실상

<b>시각적 실상</b>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
<b>청각적 실상</b>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거리는
<b>촉각적 실상</b>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b>공감각적 실상</b>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 3. 후렴구의 반복 효과

‘- 그곳이 차마 끝엔를 잊힐 리야.’의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전체에 통일성과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함.</li> <li>연을 구분함.</li> <li>운율을 형성함.</li> <li>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내면을 균형 있게 제시함.</li> <li>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며 주제를 강조함.</li> </ul>

### 4. 향토적 소재를 통해 그린 고향의 이미지

<b>향토적 소재</b>	→	<b>고향의 이미지</b>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배개 등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

# “향수” 문단 분석

1)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 향토적 이미지

」: 평화로운 고향의 풍경을 원경으로 제시함.

옛이야기 <sup>1</sup>지출대는 실개천이 <sup>2</sup>회돌아 나가고,

실개천이 마을의 유서 깊은 옛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표현함.(의인법)

열룩빼기 황소가

<sup>3</sup>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후렴구 —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함.

...> 1연 -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

2)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시간의 경과 → 겨울밤이 깊어짐.(촉각적 심상)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 세찬 바람 소리

얇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고단한 삶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아버지에 대한 회상(그리움의 정서)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2연 -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3)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시적 허용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시각적 심상)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풀섶 이슬에 <sup>1</sup>함추름 휘적시던 곳,

마구 적시던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3연 -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2-(1) 향수 [이론편]

2. 이 시에 나타난 운율과 화자의 정서를 알아보자.

	<input type="checkbox"/> 유사한 음운	
✓ 문장 구조	어떤 요소가 반복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음보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수의 음절	✓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	

→ 이 시는 각 연마다 '~는/던 곳'의 반복과 각 연의 마지막에 '-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 이 시에서 반복되는 다음 시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

→ '- 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는 꿈에서도 고향이 잊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화롭고 단란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4. 이 시에 쓰인 감각적 심상을 찾아보고, 이러한 심상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써 보자.

시각적 심상	파아란 하늘빛, 얼룩빼기 황소,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
청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거리는
촉각적 심상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심상이 주는 효과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함.
-----------	-----------------------------------------------

5. 다음 시구에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적어 보자.

-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의인법 - 정겹고 따뜻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함.
-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직유법 -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의 모습을 전해 줌

6. 이 시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야.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화자,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은 화자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는 유기적 관계임을 알 수 있지.

7.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를 서정 갈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이 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찾을 수는 없지만 시를 천천히 읽어 보면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화자의 조용한 호흡을 통해 내재율을 느낄 수 있고, 뒷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뒷마루를 거울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뒷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서정 갈래에 포함할 수 있다.

##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오  
뒋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  
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  
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  
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어디 갈 곳  
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 거울 툇마루를 찾  
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  
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까지  
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  
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  
다.

설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 꺾도 쉼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영북고등학교 (경기)**

1. (가)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1연 : 실개천에서 황소에게 물을 먹이며 평화롭고 한  
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을 회상하  
고 있다.
- ㉡ 2연 : 밤의 풍경을 질화로라는 향토적 소재를 통해 표  
현하고 있으며 늙고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슬  
픔을 드러내고 있다.
- ㉢ 3연 :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려 냄으로써 어  
린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 4연 : 누이와 아내가 현실의 고단함을 벗어나려는 모  
습을 동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5연 : 석근 별과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다소 어두운 고  
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영북고등학교 (경기)**

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지용은 1930년대에 이미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를 대표했던 시인이었다.

김기림과 같은 사람은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썼다. 특히,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미지(감각적 표현)를 중시하면서도 향토적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또한, 그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 ① ‘해설피’, ‘함추름’ 같은 시어는 우리말과 방언을 다듬어 참신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② ‘지줄대는’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실개천’의 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따가운 햇살’, ‘흐릿한 불빛’, ‘도란도란거리는’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비인’, ‘파아란’ 같은 표현에서 음절수를 늘린 시적 허용을 통해 비어 있는 발과 맑고 파란 하늘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향토적인 시어와 감각적 표현으로 고향의 모습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점점 구체화시켜 그리움을 정서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영북고등학교 (경기)**

3. <보기>에서 ㉠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고향의 정경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군.

ㄴ. ‘잇힐 리야’와 같은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군.

ㄷ. 각 연의 마지막에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군.

ㄹ. ‘차마’와 같은 수식어에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태도가 보이는군.

ㅁ. ‘그곳이’라는 구절이 각 연의 ‘~는(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군.

-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 ④ ㄱ, ㄹ        ⑤ ㄹ, ㅁ

**영북고등학교 (경기)**

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집 뒤편’은 뒷마루에 담겨 있는 화자의 유년 시절 추억과 연결되는 공간이다.
- ②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어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③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곳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환기시킨다.
-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어머니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거울’은 어떻게 손때가 뒷마루에 쌓였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며, 화자의 유년 시절 회상의 매개체이다.

**영북고등학교 (경기)**

5.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 ② 여인의 삶은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으로 화자가 만났던 여인이 여승이 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일제 강점기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의 생애를 압축과 절제된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 ⑤ 모든 시행을 전부 ‘~다’로 끝내 것은 여인이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영북고등학교 (경기)**

6. ㉠~㉢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 :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세찬 바람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 순수했던 어린 시절 가졌던 뚜렷한 목표와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외할머니네 집의 초라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 ④ ㉣ : 딸이 좋아하던 꽃을 보며 죽은 딸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 ⑤ ㉤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여인의 울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정갈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이며, '시(詩)'가 대표적인 하위 갈래이다. 서정갈래가 지닌 특징에는 첫째, 화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인 ㉠'심상(image)'을 통해서 구체화하여 생생하게 형상화한다는 점이 있다. 서정갈래가 지닌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사한 음운이나 단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 음성 상징어의 활용 등으로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정갈래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나)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질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섧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鄉愁)」 -

(다)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오뎅 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A [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 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

(라)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뎀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달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들무덤으로 갔다

산 평도 썰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마)

어제도 하로밤 / 나그네 집에 /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였소.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 정주(定州) 곽산(郭山) / 차(車) 가고 배 가는 곳 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썼소.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불암고등학교 (서울)**

7. (가)의 ㉠과 관련하여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원균 : 1연에서 화자는 평화롭고 한가한 느낌을 주는 고향마을 주변의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 ② 정일 : 2연에서 화자는 겨울밤 방 밖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으며, 방 밖과 방안의 느낌이 대조적이어야!
- ③ 은희 :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호기심 많고 꿈 많았던 시절의 모습을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어!
- ④ 영재 : 4연에서 화자는 가난했던 시절의 아내와 누이 동생의 모습을 회상하며, 가난 속에서도 가족들이 고생 없이 행복하게 살았음을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형상화하였어!
- ⑤ 영관 : 5연에서는 화자는 가난했지만 가족 간에 화목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러한 가족의 분위기를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형상화하였어!

**불암고등학교 (서울)**

8. (가)의 ㉠과 관련하여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행과 연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반복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각 연의 맨 마지막에 후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시 전체에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각 연마다 후렴구가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문장구조로 끝나도록 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불암고등학교 (서울)**

9. (가)의 ㉢과 관련하여 (나)~(마)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 :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가정 형편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다) : 비유법을 사용하여 중심 소재와 연관된 인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라) :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마) : 상황적 역설의 의미를 지니는 표현을 사용하여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마) : 시적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사물을 청자로 의인화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불암고등학교 (서울)**

1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현 : 이 작품은 구체적 공간에서의 특정 장면을 그리는 회화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
- ② 미령 : 이 작품에서는 운율이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는 듯한 호흡을 통해 내재율을 느낄 수 있어.
- ③ 경화 :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중심 소재가 지니는 '일상적 삶을 공유하며 세대 간의 교감이 이어져 오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특정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어.
- ④ 선희 : 이 작품은 향토적 소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감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는 특징이 있어.
- ⑤ 근화 : 이 작품을 서정갈래로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중심 소재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불암고등학교 (서울)**

11. (1) (다)의 A부분에서 알 수 있는 ㉠'뿔마루'가 화자에게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와/과 ○○의 공간' 형식의 3어절로 된 구절로 쓰고, (2) (다)의 작품 속에서 ㉡'오디 열매'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의 ◇◇' 형식의 2어절로 쓰시오.

<조건>

(1)과 (2) 답안에 중복된 단어를 쓰지 말 것.

**영복고등학교 (경기)**

12. <보기>를 읽고, 서정 갈래의 특성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나)를 서정 갈래에 포함할 수 있는 이유는 (가)와 (나)는 대상은 다르지만 화자의 회상과 함께 공통된 정서인 그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뿔마루' 등과 같이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를 천천히 읽어보면 조용히 호흡을 통해 운율을 느낄 수 있으며, 뿔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건>

- <보기>에 제시된 서정 갈래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
- '서정 갈래는 ~'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 “장마” 문학 정리

## ◆핵심 정리

<b>장르</b>	전후 소설, 중편 소설, 성장 소설	<b>성격</b>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사머니즘적
<b>배경</b>	• 시간적 - 육이오 전쟁 중 장마철 • 공간적 - 어느 시골 마을		
<b>시점</b>	1인칭 관찰자 시점		
<b>제지</b>	이념의 대립과 화해		
<b>주제</b>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전통적 정서를 통한 화해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li> <li>• 이중점 시점이 드러남(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li> <li>•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냄.</li> </ul>		

## ◆구성

<b>발단</b>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에 나감. 또한,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됨.
<b>전개</b>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빨치산을 아들로 둔 할머니와 큰 싸움이 남.
<b>위기</b>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고, 집안 식구들을 채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함.
<b>결정</b>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
<b>결말</b>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남.

### 1. 인물 간의 갈등과 화해

	할머니	외할머니
<b>갈등 (이념의 대립)</b>	빨치산으로 활동하는 아들을 기다림.	국군인 아들이 전사하자 빨치산을 저주함.
구렁이(삼촌의 환생)의 ↓ 출현		
<b>갈등 해소 (전통적 정서를 통한 화해)</b>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함.	구렁이를 달래어 보냄.

### 2. ‘장마’라는 배경의 의미

장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날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현상을 의미함.</li> <li>•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함.</li> <li>•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육이오 전쟁의 비극을 상징함.</li> <li>• 장마가 끝남으로써 가족사적 비극도 해소되고 이야기도 마무리됨.</li> </ul>

**3. 시점의 특징**

이 작품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여 작품에 객관성을 부여함.

<b>어린아이의 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점쟁이의 말을 믿음,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음)를 비판 없이 묘사함.</li> <li>•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냄.</li> </ul>
<b>어른의 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함.</li> <li>•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함.</li> </ul>

**4. 소재의 상징적 의미**

<b>장명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머니는 밤새도록 장명등을 밝혀 놓으라고 함. → 삼촌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나타냄.</li> <li>• 장명등이 꺼짐. → 집 떠난 사람에게 밤에 집을 잘 찾아오라고 켜 두는 장명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임.</li> </ul>
<b>구령이</b>	<p>가족들은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김.</p> <p>→ 한(恨)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령이가 된다는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볼 때 구령이는 삼촌의 환생인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의미함.</p>

**구령이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삼촌이 올 시간에 나타남.

↓

죽은 삼촌의 환생

- 이데올로기 갈등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령이로 형상화함.
- 한(恨)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령이가 된다는 무속 신앙(사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사건 전개에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함.

**삼촌의 귀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

<b>방관자적 태도</b>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로 생각함. →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
<b>우호적인 태도</b>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의 말을 건넨. → 구장 어른과 친구네 식구

**청소로 말끔해진 집 안의 의미**

장마로 더럽혀진 집 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 식구들이 쓸고 닦아 집안이 말끔해짐.

↓

가족애(민족애)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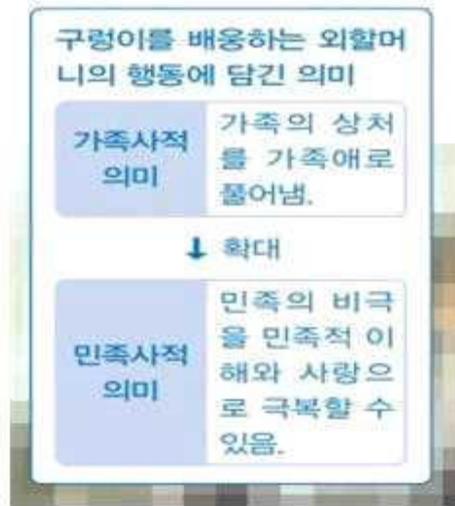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태도**

무속 신앙(점쟁이의 말)에 근거함.

↓

- 삼촌의 생환을 맹목적으로 믿음.
- 점쟁이의 말을 '제논에 물 대기' 식으로 합리화함.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  
 외할머니는 무속 신앙(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함.)에 기반하여 삼촌이 한(恨)이 맺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음. 따라서 외할머니는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려고 구렁이를 달래는 것이며, 이때 삼촌의 한(恨)은 우리 민족의 한(恨)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장마” 그래픽 요약

1. 「장마」를 감상하고,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주요 사건을 정리해 보자.

구성 단계	주요 사건
발단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에 나감.
전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함.
위기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안 식구들을 채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함.
절정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놀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
결말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남.

2.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찾아보자.

	성격	근거
'할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li> <li>• 무속 신앙을 철저히 믿는 외고집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li> <li>•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li> <li>•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여기고 놀도함.</li> </ul>
'외할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착하고 지혜로움</li> <li>• 무속 신앙을 믿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렁이가 등장하며 발생한 혼란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함.</li> <li>• 음식을 차리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li> <li>• 우는 등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함.</li> </ul>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아이답게分別력이 부족함.</li> <li>•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성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렁이를 보자 아이들과 어울려 구렁이를 해치려고 함.</li> <li>•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께 용서를 받고</li> <li>• 자신도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함.</li> </ul>

3.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처지를 바탕으로 두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보자.

<b>‘할머니’의 처지</b>	↔	<b>‘외할머니’의 처지</b>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음.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음.

➔ 갈등 상황: 국군인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그 말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임.

4.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된 계기를 찾아보고, 두 인물의 갈등 해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써 보자.

- 갈등 해결의 계기: 구렁이의 출현(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함.)
- 갈등 해결의 의미: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위로함으로써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함. 이는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일을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5.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이자 배경을 ‘장마’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해,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소설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장마’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자 나아가 민족의 불행이었던 육이오 전쟁을 상징하며,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를 암시해.

6. <보기>는 서술자를 바꾸어 이 소설을 고쳐 쓴 것이다. <보기>를 이 소설과 비교하여 읽어 보고,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답해 보자.

<보기>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동만이네 식구들은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동만이는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 한복판에서 동네 아이들은 아우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1) 이 소설을 |보기와 비교할 때, 서술자와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동만)라는 어린아이로, 소설 속 등장인물이 사건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반면 |보기 |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한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까지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 이 소설의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나 서술은 어떻게 바뀔까?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을 세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이 소설에서 작가가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만’이라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 민족 분단이라는 이념의 문제를 가족사에 대입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술자를 어린아이를 설정한 것이다.

2-(2) 장마 [이론편]

7.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주제	소설의 구성 요소가 주제 전달에 미치는 영향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난 소설의 배경인 장마가 기억에 남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마는 가족 내 갈등과 육이오 전쟁의 불행을 상징하고,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해.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것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됐어.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어.

8. 「은혜 갠 꿩」을 「장마」와 비교하며 감상하고, 서사 갈래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은혜 갠 꿩」	「장마」
공통점	*등장인물이 일정한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갈등을 겪음.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며 서술자가 있음.	
차이점	*‘한 청년’이라는 신분이 불분명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함.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증거물로 제시함.	*할머니, 외할머니, ‘나’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함. *할머니, 외할머니, ‘나’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함.



서사 갈래의 특성	서술자를 통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정한 짜임새를 갖추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주제를 표현함.
-----------	---------------------------------------------------------------------

9. 서사 갈래에 포함되는 역사적 갈래를 더 찾아보고, 그 갈래의 특성을 말해 보자.

- \*설화 -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이야기로 일정한 구조가 있는 꾸며 낸 이야기이다.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 및 풍습을 담고 있으며, 전기적이며 우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포함된다. 신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진 신적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설은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을 가진 이야기이다. 민담은 흥미 위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 \*고전 소설 -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을 이른다.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적인 요소, 우연성, 비현실성이 특징이다.
- \*판소리 사설 - 판소리의 대본을 말하며, 연행성과 현장성이 나타난다. 이후에 판소리계 소설의 원류가 되었다.
- \*신소설 -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 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이다. 계몽적인 내용이 다수이지만 현대 소설에 가까운 인물과 사건을 갖추고 있다.

## “장마” 읽기

1. ‘할머니’가 자신이 북이 없다고 혼잣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 할머니는 삼촌의 귀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장명등을 꺼뜨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 혼잣말처럼 말한 것이다.

2. ‘나’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

→ 동네 사람들은 점쟁이가 예언한 날과 시각에 삼촌이 집으로 정말 돌아올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3. 진사가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할머니는 ‘아무 시’가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날(점쟁이가 예언한 날)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외할머니’가 ‘나’의 행동을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

→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령이를 향해 작대기를 든 ‘나’의 행동을 막은 것이다.

5. ‘할머니’의 졸도는 소설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사건을 이끌어 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외할머니로 바뀌면서 외할머니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고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6. ‘외할머니’는 구령이의 등장으로 발생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 나갔는가?

→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외할머니는 홀로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7.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외할머니가 구령이에게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대신 대접하며, 구령이를 달래어 보내기 위해서이다.

9. 구령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 외할머니의 배웅에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령이가 한(恨)을 풀고 무사히 저승길로 떠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10. 정신을 되찾은 ‘할머니’가 운 이유는 무엇일까?

→ 정신을 되찾은 할머니는 삼촌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구령이가 한(恨)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한 안도감, 구령이를 직접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 복합적인 심리로 울었을 것이다.

## “장마” 문장 분석

1

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sup>4</sup>장명  
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 불길한 징조 암시 반이 조금 넘게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

2

“경사시런 날, <sup>5</sup>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  
”: 장명등을 꺼뜨린 가족들에 대한 할머니의 불만 토로  
는 뱀이니께 이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덜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한나 깐닥 앓고 뒷전에서 귀경만 허고 있을란다.”

㉔

“지지리 복도 못 타고난 년이지. 나만침 아덜, 메누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 ]: 할머니의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들을 질책하는 말임.  
것이어.”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  
외할머니의 거처  
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 ]: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반감이 드러남.  
...> 가족들에 대한 할머니의 노여움

㉕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맑아지지 않는 날씨 →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함.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 ]: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 암시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㉖

시도 때도 없이 [ ] -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  
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  
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  
[ ] -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  
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오늘 진시에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는지 알고 싶은 마음  
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 가는 환자 앞에서  
[ ]: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걸치레로 말하는 듯한 태도  
금방 나올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 집에 모여드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과 격려

6

□ - 구렁이(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

들의 손엔 **돌맹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sup>5</sup>짓쳐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 <sub>잇따라 거듭</sub> 다. 돌맹이가 날아와 폭 꽃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

구렁이가 죽어  
나 된다는 무속  
(춤)을 바탕으로  
음.  
의 전환점으로  
의 갈등이 해소  
를 제공함.

어른이 된 서술자  
가 과거를 회상하  
는 시점이 드러남.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향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 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껌싸게 헛간으로 달 <sub>참을 수가 없었다.</sub> 려갔다. 지겟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sup>1</sup>단매에 요절을 낼 <sup>2</sup>요량으로 작대기를 쥘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 <sub>외할머니</sub> 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7

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

● -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함.

8

에겐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 <sub>아들의 생환에 대한 믿음 때문에</sub> **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 <sub>경찰의 핍에 빠져 삼촌이 왔다 간 것을 말한 일</sub> **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 '나'를 용서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 할머니와 '나'의 화해, '나'의 정신적 성숙  
→ 성장 소설적 성격이 드러남.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함. ...> 장마가 끝남.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이었음.

-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줌.
-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냄.
-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민족의 비극이 종결됨을 상징함.

## **목적** **노력**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민)'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름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낮선 사람의 핏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①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 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나)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소리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담야세우는 중이었다. ②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축축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 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③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중략>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④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뻐끔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들던 간밤의 기억이 열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변에 뻐뻐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향을 지르며 ⑤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짹짜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겟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에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⑥그러자 역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돌아다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찌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흰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라)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헛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헛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니다 여그서 이려고 총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⑦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허야지. 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여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중략>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중략> ⑧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쉬이! 쉬어이!”

(마)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⑨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⑩눈물방울이 훑쪽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⑪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중략>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짙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

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윤홍길, <장마>

**장덕고등학교 (광주)**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는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이념 대립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 ④ 어린 아이인 '나'와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하고 있다.
- ⑤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덕고등학교 (광주)**

2. 다음 중, 밑줄 친 ㉠~㉤의 의미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 :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정성을 상징하는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② ㉡ : 한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할머니의 노여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자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 ④ ㉣ : 아들의 생환만을 기다리며 보냈던 할머니의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과거 삶을 상징한다.
- ⑤ ㉤ : 삼촌의 죽음에 대한 슬픔,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구렁이를 직접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눈물이다.

**장덕고등학교 (광주)**

3. 다음 중, 이 글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민현 :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아들들의 이념 대립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외삼촌의 전사 소식에 갈등이 깊어 지게 됐구나.
- ② 성우 : (나)에서 하늘이 아직도 흐리다는 것을 보니 '나'의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 ③ 다니엘 : 돌아온다고 믿었던 아들 대신 구렁이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할머니는 삼촌이 죽었음을 직감해 졸도한 것이겠군.
- ④ 지훈 : 두 할머니는 한(恨)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구렁이를 죽은 삼촌이 환생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군.
- ⑤ 지성 :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용서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

**장덕고등학교 (광주)**

4. 다음 중, 시적 화자의 정서가 (라)의 ㉥의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기침을 하자. /
-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 김수영, 「눈」

- ② 누나라고 불러 보랴 / 오오 불설워 / 시새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 이 산 저 산 돌아 가며 슬피 읊는다.

- 김소월, 「접동새」

- ③ 뭍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 니 뭍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 이승 아니든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뭍락카노 뭍락카노 / 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 //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

- 박목월, 「이별가」

- ④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 김춘수, 「꽃」

- ⑤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장덕고등학교 (광주)**

5.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할머니와 ‘나’가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되며 결말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갈등이 해소 된다.
- ② ㉡ :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 아무리 미물이지만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나’를 막고 있다.
- ④ ㉣ : 상처 입은 구렁이의 모습은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을 상징한다.
- ⑤ ㉥ :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장덕고등학교 (광주)**

6. 다음 중, 등장인물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현종 :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남과 북의 이념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 ② 치홍 :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안 식구들을 심하게 채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 같다.
- ③ 선빈 : 마치 사람을 달래 듯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니, 외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무속신앙을 믿는 분 같아.
- ④ 주찬 : 할머니가 졸도하셔서 외할머니가 사건을 주도하시게 되면서 두 분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
- ⑤ 형우 : ‘나’는 구렁이를 보고 해치려고 하는 걸 보니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장덕고등학교 (광주)**

7. 위글과 다음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보기>

<앞부분 줄거리> 옛날 강원도에 활을 잘 쏘는 한 청년이 살았다. 그는 한양으로 가던 중, 커다란 구렁이가 꺼병이(땡의 어린 새끼) 세 마리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고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아 꺼병이들을 구해준다. 계속해서 산길을 걷던 청년은 날이 저물자, 어느 집에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 집주인은 청년을 빈방으로 아내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다.

배가 고팠던 터에 갑자기 발을 든든히 먹자 청년은 몸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청년은 무언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다. 정신을 차려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청년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 “사람 살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 하자 구렁이가 말했다.

“잘 만났다. 이 원수야. 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중략>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저 위의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들리면 부처님이 너를 살려 주라는 뜻으로 알겠다.

청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깊은 밤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리 없었기 때문이다. 구렁이는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청년은 곧 죽을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 갑자기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더니 이어 땡, 땡 두 번 더 이어졌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종소리가 세 번 울리자 청년을 감고 있던 구렁이는 스프르 몸을 풀더니 밖으로 기어 나갔다. 겨우 목숨을 구한 청년은 벌떡 일어나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저만치 달리다 문득 돌아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바로…….”

청년은 소름이 돋았다.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흘린 것이 분명했다. 청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산 위쪽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고 종탑에 종이 매달려 있었다. 청년은 종 아래쪽에 죽어 있는 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땡은 이마와 부리가 심하게 깨져 있었다. 그 땡은 바로 어제 청년이 살려 준 꺼병이들의 어미였다.

“네가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바쳐 날 살려 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청년은 땡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다. 그러고는 한양으로 이름을 날리려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작은 절을 크게 고쳐 지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원주 상원사이다. 그 뒤로 사람들은 상원사가 있는 적악산을 ‘땡을 적’, 자 대신 ‘땡 치’ 자를 붙여 치악산으로 고쳐 불렀다.

- ①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전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위 글과 달리 <보기>는 동물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위 글은 <보기>와 달리 구체적인 장소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위 글은 <보기>와 달리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⑤ 위 글과 <보기>는 모두 등장인물이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주제를 형상화한다.

**장덕고등학교 (광주)**

8. 소설의 제목인 '장마'는 여름철에 계속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하며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장마'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쓰고, (마)의 ㉣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1) '장마'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포함할 것.
- (2) 어떤 점을 근거로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밝힐 것.
- (3) 맞춤법에 어긋날 경우 감점함.
- (4) '장마'는 ~을 상징하며, ㉣는 ~을 의미한다.'식으로 서술할 것.

**장덕고등학교 (광주)**

9.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한 가정에서 발생한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그리고 있다. 빨치산과 국군인 아들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대립구조를 지녔던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조건>

- ㄱ. 반드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를 구체적 근거로 제시할 것.
- ㄴ. 맞춤법에 어긋날 경우 감점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민)'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쏟아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가)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닥하지 않았다. 방문을 꽁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 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 안팎의 거미줄도 걸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빠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배꼽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도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나)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 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라)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분석 정리

### ◆핵심 정리

<b>갈래</b>	시나리오	<b>성격</b>	교훈적, 동화적
<b>배경</b>	• 시간 - 현대 • 공간 - 서울	<b>제지</b>	개를 훔치는 일
<b>주제</b>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문제, 실업 문제,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동화적 기법으로 전개함.</li> <li>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아이와 어른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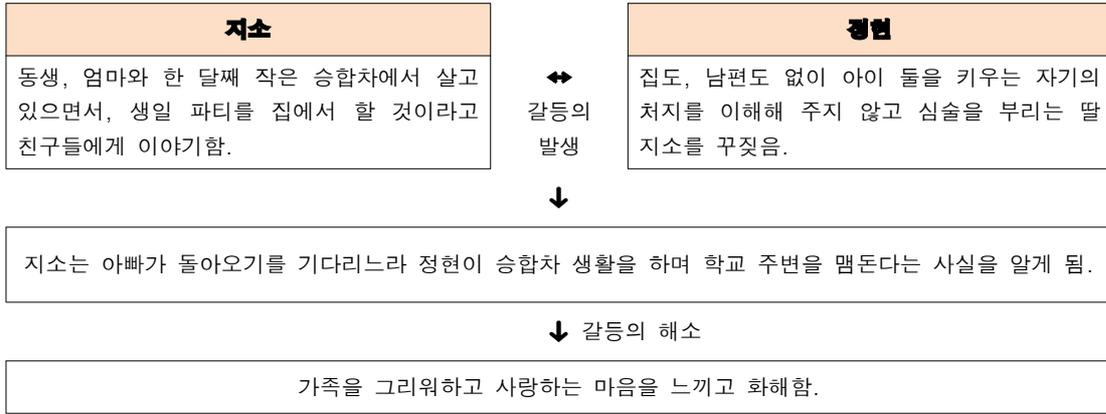
### ◆구성

<b>발단</b>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를 기다리며 엄마와 동생 지석과 함께 승합차에서 사는 지소는 다음 달에 있을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고 싶어 함.
<b>전개</b>	오백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오해한 지소는 부잣집 개를 훔친 후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고급 레스토랑 주인인 노부인의 개 월리를 훔침.
<b>결정</b>	지소는 월리가 노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가출한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됨. 또한 지소는 우연히 아빠가 남긴 글을 발견하면서 엄마가 승합차에서 사는 것은 아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런 것임을 깨달음.
<b>허락</b>	지소는 자신이 아빠를 기다리는 것처럼 노부인도 월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
<b>대단형</b>	지소는 자신을 용서한 노부인에게 월리의 산책을 부탁 받고, 엄마에게 생일 축하 도시락을 받음.

### 1. 등장인물의 특성

인물	특성
<b>지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생일 파티를 위해 집을 구할 계획을 세우는 순수한 모습을 보임.</li> <li>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줄 아는 선량한 마음씨를 지님.</li> </ul>
<b>정현</b>	아이들을 승합차에서 키우는 철없는 엄마 같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음.
<b>노부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경질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음.</li> <li>지소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이를 용서하여 지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li> </ul>
<b>대포</b>	지소를 도와주며, 지소가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해 줌.

**2. 등장인물 간의 갈등 양상**



**3. '지소'에게 '집'의 의미 변화**



**4.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b>장면 표시</b>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들을 찍은 단위. 'S# 1, S# 2' 등의 장면 번호(Scene number)로 표시하며 시간과 공간이 제시됨.
<b>대사</b>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킴.
<b>지시문</b>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조명,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필름 편집 기술 등을 제시함.
<b>해설</b>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주로 배경이나 등장인물을 소개함.

**“인물 중심을 선택한 장면” 스토리보드 만들기**

1. '지소'에게 '집'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 보자.  
 → '지소'에게 '집'이란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라는 의미였지만,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3. 'S# 78'(학교 앞 - 거리, 아침)에서 드러나는 시나리오의 특성을 찾아 정리해 보자.  
 \* '신(scene)'을 구성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다. 이때 'S# 78'과 같이 숫자로 장면 번호를 표시한다.  
 \*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제시한다.  
 \* 시유(C.U.)와 같이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3. 몽타주 편집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몽타주 기법은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편집 기법이다. 이러한 몽타주 편집 기법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론편]

4. 'S# 84'(레스토랑 마르셀 - 홀과 집무실, 낮)에서 다음과 같은 인서트(Ins.) 장면이 없었다면 내용 전달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파악해 보고, 이 장면을 삽입한 의도가 무엇일지 말해 보자.

→인서트 장면은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을 말한다. 'S# 84'에 인서트 장면이 없었다면 앞의 'S# 66'에 나왔던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윤서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인서트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윤서오'가 율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이후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한다.

5. <보기>는 'S# 75'의 일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두 글을 비교해 보고, 제시된 항목에 따라 두 글의 갈래상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보기>

지소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노부인의 앞에 섰다. 잠시 후 노부인이 말했다.

“율리를 어디서 봤니?”

생각지 못한 질문에 지소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빨리 돌려대야 했다.

“아, 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율리가 맞아?”

초조하게 서 있던 수영이 지소를 노려보며 물었다.

“네, 확실해요.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개를 잃어버리신 게 맞죠?”

지소는 열심히 율리 흉내까지 내어 가며 대답했다. 자신의 얘기에 무척 반가워할 것이라는 지소의 기대와는 달리 노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잃어버린 거 아니다. 율리는 집을 나간 거야.”

	시나리오	소설
사건 전개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도 사건이 전개됨.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 감.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감.

6. 「결혼」이라는 희곡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문학에서 같은 갈래로 묶는 이유를 파악해 보자.

-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함.
-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함.

7. 「결혼」이라는 희곡에서 연극 공연에서만 가능한 장면을 찾아보고, 이 장면을 영화로 형상화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 이 희곡에서 남자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고 그에게서 넥타이를 빌리는 장면은 연극 공연에서만 가능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이 영화화된다면 남자가 화면을 향해 이야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영화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는 있지만 넥타이를 직접 주고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형상화하기는 어렵다.

8. 연극과 영화의 형상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 연극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게 못하고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표정 등을 확대하여 보여 줄 수 없으므로 행동이나 말투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는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고, 촬영이나 편집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장면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 ㉡시유(C.U.).

지소㉢(내레이션) :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채랑 :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지소 :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할 거야?  
채랑 :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지소 :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채랑 : 정말?  
지소 : 우린 월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채랑 : 오, 완벽한데? 좋아했어.

S# 97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 월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월 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노부인 : (지소를 바라보며) 월리를 찾아 줘서 고맙다. (월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월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지소 : 그럼 전 이만 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 앞에 다다라 멈춰 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지소 : 근데 월리는 목줄을 풀어 주면 엄청 좋아해요.  
노부인 :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 사실은…….  
노부인 : …….  
지소 :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노부인 : (지소를 바라보며) 뭐?  
지소 :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실은 제가 월리를 훔쳤어요.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지소 : (내레이션)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애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오백만 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노부인 : (고개를 끄덕이며)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지소 : 죄송해요. 전 이만 가 볼게요.  
- 바바라 오코너 원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대지고등학교 (경기)**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들을 찍은 단위이다.
- ② ㉢은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화면이다.
- ③ ㉣은 인물이 표현하는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다.
- ④ ㉤은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인물의 대사이다.
- ⑤ ㉥은 인물의 몸짓이나 표정,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대지고등학교 (경기)**

2. ㉡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개의 화면 겹치게 함.
- ②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음.
- ③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소리를 넣음.
- ④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분을 화면에 크게 나타냄.
- ⑤ 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사건 진행을 축약하여 나타냄.

**대지고등학교 (경기)**

3. ㉔를 참고할 때, 지소가 깨달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크고 좋은 집에서의 생일 파티가 의미 없다.
- ② 월리를 이용한 거액의 사례금이 이전 의미 없다.
- ③ 생일 파티보다 아빠가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졌다.
- ④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 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으로서의 집이 중요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62

레스토랑 마르셀 - 정원과 홀과 집무실, 낮 (㉑)

1. 레스토랑 마르셀의 정원 : 지소와 채랑은 창문을 통해 홀 내부를 살핀다. 때마침 마르셀로 들어가는 한 부부를 본 채랑은 그 부부의 딸인 듯 자연스럽게 뒤에 쫓아가 마르셀 안으로 들어간다.

2. 레스토랑 마르셀의 홀 : 홀에 들어온 채랑은 준비해 온 장난감 강아지를 홀 가운데로 던진다.

3. 레스토랑 마르셀의 집무실 : 바닥에 누워 늘어지게 하품하는 중인 월리.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으로 사료가 하나 굴러 들어온다. 월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자 걸어 놓은 목줄이 빠진다.

4. 레스토랑 마르셀의 홀 : 문을 뚫고 열고 머리를 내민 월리가 문 앞에 놓인 사료를 발견한다. 사료를 하나하나 주워 먹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월리. 그사이 채랑은 홀에서 빠져나오고, 홀 계단까지 내려온 월리를 본 지소는 원격 조정기로 장난감 강아지를 작동한다. 장난감 강아지 때문에 홀 내부는 혼란스러워지고 그사이에 월리가 열린 문틈으로 나온다.

5. 레스토랑 마르셀의 정원 : 한 손 가득 사료를 들고 월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지소. 지소의 손 (㉒). 지소의 손에 있는 사료를 발견하고는 지소와 채랑 쪽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월리. 그 순간 월리의 목줄을 '탁' 하고 밟는 구둣발. 수영이다.

수영 : (월리를 내려다보며) 너, 어디를 혼자서 그렇게 막 다니냐? <중략>

S# 72 재개발 지역의 빈집 - 마당, 낮

놀란 표정의 지소가 빈집의 뒷마당을 보며 서 있다. 월리를 곁에 둔채 (A)<대포가다섯개짜리요구르트한줄>을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다.

지소 :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 개, 우리 개예요.

대표 : (월리에게 소시지를 던져 주며).....

지소 : (더 가까이 다가가 큰 목소리로) 그 개, 우리 개라고요!

대표 : (돌아보며) 그래, 알았어. 너희는 개를 왜 이런 데 버리고 그래?

지소 : 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대표 : (월리의 머리를 쓰다듬다 지소를 바라보며) 이 개 이름은 뭐냐?

지소 : 월리요.

대표 : (혼잣말처럼) 월리? (다시 월리를 쓰다듬으며) 그런데 월리를 왜 이런 데 보관하는 건데?

지소 : (㉓) 그게 저...... 집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요. 이사 갈 때까지만 둘 거예요.

대표 : (한쪽에 던져 놓은 가방을 들며) 집주인이 되면 개가 싫어지는 걸까. 개를 싫어하면 집주인이 되는 걸까?

<중략>

S# 75 레스토랑 마르셀 - 집무실, 낮

노부인의 책상 앞에 지소가 서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㉔)

노부인 : 월리를 어디에서 봤니?

지소 : (사이를 두고) 아, 하...... 학교 앞에서 봤어요.

수영 : (지소를 노려보며) 월리가 맞아?

지소 : 네, 확실해요. (월리 모양을 흉내 내며) 귀는 이렇게 생기고, 입은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개를 잃어버리신 게 맞죠?

노부인 :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월리는 집을 나간 거야.

지소 : (㉕)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노부인 :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월리는. (혼잣말로)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

지소 : (큰 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지소의 반응에 고개를 들어 지소를 다시 쳐다보는 노부인.

2-(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문제편]

노부인 :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 (당황하며) 그게…….  
 노부인 : ( ㉔ ) 어떻게 아느냐고?  
 지소 : 우리…….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소의 말에 굳은 표정이 풀리는 노부인의 얼굴.

노부인 : 아빠가 집을 나갔니?  
 지소 :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니, 나가긴 한 건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월리도 그렇고요.  
 노부인 : (지소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네 생각엔 정말 그럴 거 같니?  
 지소 : (단호하게) 네!

단호한 지소의 대답에 노부인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중략>

S# 77 <중략>

대포가 지소에게 나무판자를 잡으라는 손짓을 하고, 지소는 대포를 돕기 시작한다. 대화하는 사이에 완성된, 어설피지만 그럴싸한 개집.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으로 쏙 들어가는 월리.

대포 : (청국장을 저으며) 근데 저기 큰길 건너 골목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  
 지소 : (놀라서 돌아보며) 네?  
 대포 : 그 개가 너희 개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지소 : 아마……. 비슷한 종류겠쥬.  
 대포 : (청국장을 계속 저으며) 그렇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개 이름도 월리라는 거지.  
 [                    ㉕                    ]

S# 78 학교 앞 - 거리, 아침

채량이 들고 온 전단을 뺏어 드는 지소. “월리를 찾습니다” 라고 적힌 ( ㉕ )

지소 :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다 수거해야 해.  
 채량 : (어리둥절하며) 왜?  
 지소 : 아저씨가 이걸 봤어. 잘못하면 들기겠어.  
 <중략>

S# 84 레스토랑 마르셀 - 홀과 집무실, 낮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노부인 : 이 그림이 얼마인 줄 아니?  
 지소 : 얼마인데요?  
 노부인 : 이억 오천만 원이란다.  
 지소 :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는 표정으로)…….  
 노부인 :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인제 그만 둘 때가 된 거 같아.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쳐다본다. ‘윤서오’라는 글씨. ( ㉖ )  
 ( ㉖ ) ‘S#66’에서 월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월리의 이름표.

지소 : 윤서오? 혹시 이 사람이…….  
 노부인 : 내 아들이란다. 애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지소 : 그 개가……. 월리인가요?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춘다.

S# 85 아파트 단지 밖 - 승합차 안, 밤

정현 :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운전석에서 차 열쇠를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현. 엔진은 시동이 걸릴 듯하다가 이내 김빠지는 소리를 낸다.

정현 : (돌아보며) 너희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지소 :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정현 : (한숨 쉬는) 힘들어도 좀만 참자. 응?  
 지소 :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  
 정현 : 말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려고 사는데?  
 지소 : (발끈하는)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정현 :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소 : 엄마가 아빠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아빠 집 나간 거 아니었어?

정현 :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잔뜩 부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지소 : 철은 엄마가 들어야지. 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

정현 : (분에 겨워 목소리를 높이며) 야!

파르르 떨리는 정현의 입술. 지소는 차 문을 열고 내린다. 지석은 지소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정현은 이마로 운전대를 랑 들이받는다.

<중략>

S# 89 아파트 단지 밖 - 승합차 앞, 밤

다시 차로 돌아온 지소와 지석. 그런데 차에 정현이 보이지 않는다.

지석 : (차 안을 들여다보며) 누나, 엄마가 없어.

지소 : (애써 아무 일도 아닌 척) 어디 근처에 있겠지.

지소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지석은 “엄마!”를 외치며 차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지소 : 야! 조용히 좀 해!

지석 : 엄마! 어엄 마아! 어어엄 마아아!

지소 : 동네 사람 잠 다 깨겠다!

지석 : (울먹이며)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사라지면 어떡해?

지소 : 야!

지석 : (눈물을 툭툭 흘리며)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진짜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지소 : 아, 시끄럽다니까!

거푸 엄마를 외치는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지소는 운전석 옆 구두 상자를 열어 본다. 상자 안에 정현의 화려한 구두가 보인다. 상자를 도로 닫으려다 상자 뚜껑에 적힌 글을 발견한 지소.

“여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돌아올게. 조금만 참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좋은 남편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 줘. 딱 일주일만.”

아빠의 글을 읽다 마지막 ‘일주일’에 울컥하는 지소. 지석보고 계속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지소. 그때 다시 “엄마!” 하는 지석의 외침이 날카롭게 들려온다. 지소가 고개를 획 돌려 보면 멀리 가쁜 숨을 내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정현이 보인다.

정현 : 누가! 누가 멋대로 밖에 나가라고 했어! 이 시간에!

어?

지석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울기만 한다. 지석의 손을 잡고 지소에게 다가온 정현은 지소의 등을 연신 때린다.

정현 : 아주 못됐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됐어! 어? 그렇게....., 그렇게 가 버리면 엄마는!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지석과 달리 지소는 울음을 꼭 참고 있다. 정현은 힘이 빠지고 무너지듯 쓰러지며 지소를 끌어안는다.

정현 : 너희까지 없으면 엄만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희도 없으면..... (지소를 안아 준다.)

지소 : (울며)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정현 :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희를 차에서 키우고, 엄마가 미안해.

지소 : 엄마,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정말 나 학교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지?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 봐 기다리는 거지?

정현 : (말없이 지소의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주며).....

지소 : (핑핑 울며)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가 빨리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돌려놓아 줬으면 좋겠어.

정현 : (지소의 얼굴을 비비며) 엄마도 그래, 지소야.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 (지석을 끌어안으며) 지석이도 이리 와.

별빛이 비치는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

지소(내레이션) : 나는 개를 훔쳤다. 완벽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 시유(C.U.).

지소(내레이션) :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중략>

S#97 :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윌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 윌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윌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노부인 : (지소를 바라보며) 윌리를 찾아 줘서 고맙다. (윌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윌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지소 : 그럼 전 이만 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 앞에 다다라 멈춰 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지소 : 근데 윌리는 목줄을 풀어 주면 엄청 좋아해요.

노부인 :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 사실은.....

노부인 : .....

지소 :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노부인 : (지소를 바라보며) 뭐?

지소 :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실은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지소 : (내레이션)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중략>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지소 : 죄송해요. 전 이만 가 볼게요.

S# 98 레스토랑 마르셀 - 정원, 저녁

어깨가 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간다. 처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노부인 : 얘야.

지소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노부인이 계단 위에 서있다.

노부인 : 내일 마르셀에 와서 ㉞윌리 산책을 시켜 주겠니? 대신 맛있는 ㉝아이스크림을 주마.

㉞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지소 <중략>

S# 100 아파트 단지 밖 - 승합차 안, 밤

일을 마친 정현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㉞공책을 덮고 정현을 본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㉝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 주는 정현.

지소, 지석 : 이게 뭐야?

정현 : 열어 봐.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 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㉞작은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 있다.

정현 :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㉝생일 축하해, 지소야.

㉞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㉝정현을 꼭 껴안는다.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블람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② 해설이나 서술자의 묘사를 통해 주제가 표출되기도 한다.
- ③ 장면 전환이 자유롭고,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 ④ 대사 중심으로 장면이 구성되며, 대사를 통해 인물의 갈등 관계가 드러난다.
- ⑤ 내레이션은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설하는 것으로 희곡의 방백과 유사하다.

**불암고등학교 (서울)**

5. ㉠~㉣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몽타주                      ② ㉡ : 시유(C.U.)
- ③ ㉢ : 인서트(Ins.)              ④ ㉣ : 시유(C.U.)
- ⑤ ㉤ : 인서트(Ins.)

**불암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에 들어갈 지시문과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지시문	이유
㉠	S#72	㉠(당황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	S#75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다.	월 리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수영은 월리를 뺀다는 지소의 말에 초조해져서
㉢	S#75	㉢(급한 마음으로)	노부인이 월리를 찾지 않을까 봐
㉣	S#75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소가 당황하여 놀랐을까 봐
㉤	S#77	㉤지소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대포가 눈치 챘을 것이 걱정되어서

- ① ㉠                                      ② ㉡
- ③ ㉢                                      ④ ㉣
- ⑤ ㉤

**불암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서 '지소'가 생각하고 있는 '집'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를 훔쳐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집'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 ② 개를 훔쳐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집'을 친구를 초대해서 생일파티를 할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 ③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뒤에는 '집'을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 ④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뒤에는 '집'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 ⑤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뒤에는 '집'을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불암고등학교 (서울)**

8.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84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뒤로 감춘다."는 부분은 지소가 노부인의 사연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음을 알려준다.
- ② S#85에서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등의 대사를 통해 지소와 정현의 갈등 이유가 드러나고 있군.
- ③ S#89에서 정현이 동네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지소 아빠를 기다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S#89 아빠의 글에서 '일주일'을 보고 엄마가 왜 일주일만 참자고 했는지 지소가 알게 되면서 정현과 지소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S#97에서 지소가 노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이유는 지소 자신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월리에게도 집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암고등학교 (서울)**

9.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 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해 보나 마나겠고……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 분만 빌립시다. <중략>

여자 :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남자 : (웃으며) 뭘요.

여자 : 아니, 정말 그래요.

남자 :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 드립니다.

- 이강백, 「결혼」

-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관객을 실제 공연에 참여시키며 사건을 전개할 수 있다.

# “한 그루 나무처럼” 목적 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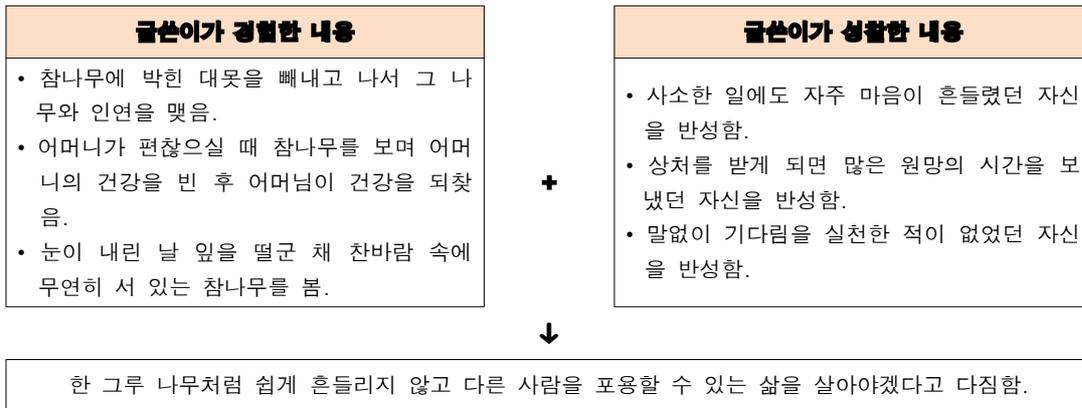
## ◆핵심 정리

<b>감제</b>	현대 수필, 경수필	<b>성격</b>	체험적, 성찰적, 고백적
<b>제제</b>	대못이 박힌 참나무		
<b>주제</b>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표현함.</li> <li>•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드러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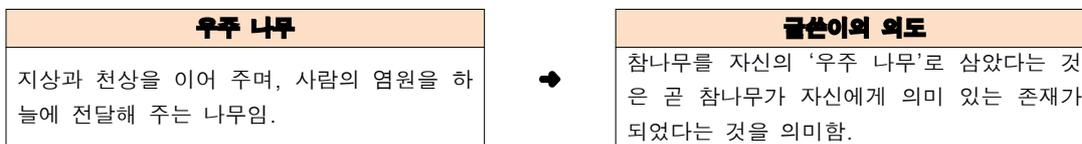
## ◆구성

<b>처음</b>	주말마다 혼자 산에 오르며 사색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짐.
<b>가운데</b>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낸 뒤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아가 위안을 얻음.
<b>끝</b>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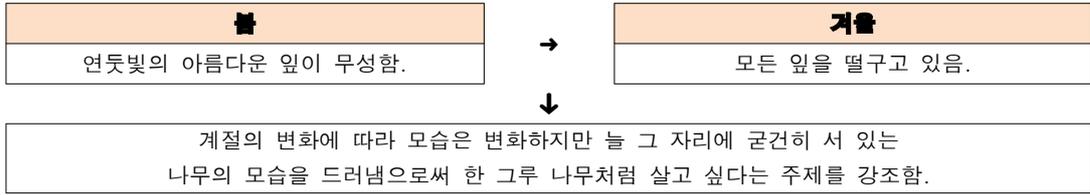
### 1.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



### 2. '우주 나무'의 의미



**3.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 양상**



**4. 수필의 특징**

- 글쓴이가 작품에 직접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함.
- 일기체, 서간체, 기행문체 등 어떤 형식으로도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님.
- 글에 담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삶에 대한 사색과 통찰 등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줌.

## “한 그루 나무처럼” 의의선 읽기

1. 이 수필의 내용을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내고 나서 그 나무와 인연을 맺음.</li> <li>•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참나무를 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빈 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음.</li> <li>• 눈이 내린 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함.</li> <li>•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돌아봄.</li> <li>•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함.</li> </ul>

2. 이 수필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말해 보자.

→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글쓴이가 옛 신화에 나오는 ‘우주 나무’를 소개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우주 나무’의 의미: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 평범한 참나무이지만 글쓴이가 대못을 빼낸 후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낸다.

4. 이 수필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봄		겨울
사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둣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 내고 있었다.	→ 계절의 변화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 효과:참나무는 무성한 잎을 가진 봄이든 모든 잎을 떨군 겨울이든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주제를 강조한다.

5. 이 수필에 대한 독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필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독서 토의 내용	수필의 특성
시처럼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았고, 소설처럼 갈등 전개에 따른 구성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움.
현실 세계에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제재로 삼고 있다.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
작품 속 '나'는 글쓴이로,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서술하고 있다.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함.
홀로 하는 산행을 즐기는 등 글쓴이의 개인적 특성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남.
이 수필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던 나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줌.

## “한 그루 나무처럼” 읽기 수업

1. 참나무를 본 '나'의 눈에 가장 먼저 된 것은 무엇인가?

→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다.

2. '나'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더니 실제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이년 반쯤 되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이다.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듯 차분하게 다가온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중략>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나) 그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사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둑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 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못을 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봐.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 온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 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 나무는 사람의 영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 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력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라)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

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근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햇볕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과연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를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마)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대지고등학교 (경기)**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글쓴이는 오래 전에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나무에 대못을 박아 둔 경험이 있음.
  - ② (나) : 글쓴이는 녹슨 못을 빼내고 나무와 인연을 맺은 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를 찾음.
  - ③ (다) : 어머니의 쾌유로 나무를 비롯한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됨.
  - ④ (라) : 찬바람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됨.
  - ⑤ (마) :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함.

**대지고등학교 (경기)**

2. 글쓴이가 뒷글을 쓰기 전, <보기>와 같이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뒷글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글의 구성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문(問)-답(答)’에 의한 구성방식을 사용한다.
  - ㉡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 개성이 드러나도록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서술한다.
  - ㉢ 어떤 어조로 주제를 드러낼 것인가?  
: 격정적이며 설득적 어조를 일관성 있게 드러낸다.
  - ㉣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일상에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특이한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접근한다.

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  
: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의미를 이끌어 내어 전달하려는 태도로 접근한다.

- ① ㉑, ㉒      ② ㉒, ㉔      ③ ㉒, ㉔  
④ ㉔, ㉒      ⑤ ㉒, ㉔

**대지고등학교 (경기)**

**3. 밑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苦忘亂抽書(고망란추서) 잇음 많아 이 책 저 책 뽑아 놓고서  
散漫還復整(산만환부정) 흩어진 걸 도로 다 정리하자니,  
矚靈忽西顏(요령홀서퇴)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江光搖林影(강광요림영) 강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扶筇下中庭(부공하중정) 막대 짚고 트락으로 내려 가서  
矯首望雲嶺(교수망운령) 개 들고 구름재를 바라다보니,  
漠漠炊烟生(막막취연생)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蕭蕭原野冷(소소원야랭)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田家近秋穫(전가근추확) 농사짓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喜色動白井(희색동백정)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도네.  
鴉還天機熟(아환천기숙)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鷺立風標迴(로립풍표형)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철해  
我生獨何爲(아생독하위)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지 원  
宿願久相梗(숙원구상경)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無人語此懷(무인어차회) 이 회포를 누에게 이야기할거나  
瑤琴彈夜靜(요금탄야정) 거문고만 등등 탄다. 고요한 밤에.

- 이황, 「만보(晩蓀)」

- ①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함으로써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④ 성현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자연을 통해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이 년 반쯤 되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절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듯 충만하게 다가온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 고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올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오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세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둑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 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못을 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봐.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 온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 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㉑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 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햇빛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과연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를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걸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나)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치취의 내용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담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설패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 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수택고등학교 (경기)**

4. (가)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작가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형상화하기 위해 '나'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설정했군.

ㄴ. '나'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군.

ㄷ. '나'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참나무에 박힌 녹슨 대못을 빼주었군.

ㄹ.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군.

ㅁ. 이런 갈래의 글을 쓸 때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본 형식에 주의해야겠어.

ㅂ. '나'는 참나무와의 인연으로, 우리 옛 신화에 등장하는 '우주나무'가 주로 참나무인 까닭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군.

ㅅ. 소재를 통해 얻은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뿐만 아니라, 글쓴이 자신의 독특한 흥미나 취향을 엿볼 수 있군.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 ③ ㄴ, ㅁ, ㅂ                        ④ ㄴ, ㄹ, ㅅ
- ⑤ ㄹ, ㅁ, ㅅ

**수택고등학교 (경기)**

5. (가)의 내용을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찰과 경험	성찰과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주변 사물의 미세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됨.</li> <li>• 어느 날 일선사 방향과 다른, 어느 시인의 생가가 있는 약수터 쪽으로 등산하게 됨.---㉠</li> <li>• 대못으로 인한 상처에도 말이 없는 참나무의 모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음----㉢</li> <li>• 타인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며 살았음.</li> <li>•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실천한 적이 없었음-----㉣</li> <li>• 걸모습은 변하더라도 속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음---㉤</li> </ul>

- ① ㉠                                      ② ㉢
- ③ ㉣                                      ④ ㉤
- ⑤ ㉡

**수택고등학교 (경기)**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자연은 세태 비판의 수단이고, (나)에서 자연은 소망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②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나)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삶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이를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7. ㉠의 까닭을 <조건>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 우주 나무의 의미와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서술할 것
- '우주나무는 ~기 때문이다.'의 형식을 갖춰,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수택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추상적인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 :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 ㉣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④ ㉠ : 시적 대상의 감정을 '산 핏'에 이입하여 비극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⑤ ㉢ : 의미가 중의적이어서 '눈물방울'이 비유하는 대상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수택고등학교 (경기)**

9. 다음을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착취가 심해지던 시기에 창작되었다. 화자의 서사적 진술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가난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여인'이 겪게 되는 비극은 그녀의 개인적 삶과 그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대 우리 민족의 흔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볼 때, 이 당시 시련을 겪은 민중들은 모두 종교에 귀의했겠군.
- ② '섶벌'과 '가지취'는 1930년대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시어임을 알 수 있군.
- ③ 이 시는 우리 민족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 개개인과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했군.
- ④ 창작 당시의 독자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사건이 실재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군.
- ⑤ '나'가 '여인'의 모습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까닭은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 고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올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오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다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 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세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둑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 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못을 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봐.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 온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랐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 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 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

## 1-(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③ 2.② 3.⑤ 4.③ 5.① 6.③ 7.④ 8.④ 9.② 10.④

## 1-(2) 글로 쓰는 나의 꿈

1.① 2.⑤ 3.② 4.③ 5.③ 6.④ 7.㉗ 알고 있는 내용: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정리하고 요약한다. 알고 싶은 내용: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한다. 관련된 책을 찾아 본다. ㉘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분석'의 서술방식을 사용하였다. ㉙ 호기심을 갖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수많은 실패 속에 배움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진심을 지녀야 한다. 필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서술 방식을 이용하였다. 8.② 9.① 10.⑤ 11.① 12.② 13.④ 14.② 15.⑤ 16.③ 17.④ 18.④ 19.의미 구성 과정 20.④ 21.⑤

## 1-(3) 시각 상과 촉각 상

1.① 2.④ 3.④ 4.⑤ 5.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6.⑤ 7.④ 8.① 9.(1)'대조'이다. (2)사람과 동물, 서양과 동양, 시각 상과 촉각 상이다. 10.③ 11.② 읽기 중 단계에 해당 12.⑤ 13.① 14.㉗ 혼합 형식 ㉘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진다 ㉙ 영원 불멸한 15.⑤ 16.⑤ 17.④ 18.⑤ 19.④ 20.④ 21.⑤ 22.④ 23.③ 24.② 25.① 26.③ 27.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보이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② 29.② 30.① 31.⑤ 32.③ 33.④ 34.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35.① 36.② 37.③ 38.② 39.⑤ 40.④ 41.③ 42.④ 43.⑤ 44.④ 45.④ 46.촉각 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를 말하며, 시각 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를 말한다. 파라오나 귀족을 그린 이집트 벽화는 촉각 상에 해당하며, 농부나 무희를 그린 이집트 벽화는 시각 상에 해당한다. 47.시각 상에 가깝게 그렸다. 이는 찰나의 대상이자 필멸의 운명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 2-(1) 향수

1.③ 2.⑤ 3.② 4.① 5.⑤ 6.⑤ 7.④ 8.② 9.③ 10.④ 11.(1)위로와 치유의 공간 (2)외할머니의 사랑 12.서정갈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갈래이다. 13.④ 14.② 15.④

16.⑤ 17.⑤ 18.① 19.① 20.② 21.③ 22.② 23.(1)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 (2)이 시에서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고배하는 듯한 화자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내재율을 느낄 수 있고, 뒷마루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뒷마루를 거울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뒷마루에 얽힌 화자의 추억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시는 서정갈래라 할 수 있다. 24.③ 25.⑤ 26.이 시는 각 연마다 '-는/ -던 곳'의 반복과 각 연의 마지막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7.① 28.서정 갈래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함축적인 언어로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서정 갈래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한다. 29.② 30.④ 31.④ 32.② 33.④ 34.㉘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직유법이고 '눈물방울처럼'과 '눈물방울과 함께'로 풀이할 수 있다. 35.⑤ 36.④ 37.② 38.② 39.의인법,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40.② 41.③ 42.⑤ 43.③ 44.㉘에 사용된 심상은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며, 그에 해당하는 예는 '푸른 종소리'이다. 45.① 46.① 47.③ 48.심상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화한다. 49.④ 50.④ 51.② 52.⑤ 53.④ 54.㉙의 표현기법은 설의법이고, ㉚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집약하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2-(2) 장마

1.② 2.④ 3.① 4.② 5.③ 6.④ 7.⑤ 8.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과 우리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육이오 전쟁을 상징하며, ㉘는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여,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 민족의 비극이 해소(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9.두 할머니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한 것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0.⑤ 11.④ 12.③ 13.① 14.구령이 15.④ 16.'장마'는 동만의 가족에게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의미하며, '장마였다'라고 끝낸 것은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 17.가족사적 측면에서는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고, 민족사적 측면에서는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18.③ 19.④ 20.④ 21.장명등은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을 의미하며 ㉚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22.⑤ 23.① 24.③ 25.① 26.② 27.① 28.⑤ 29.① 30.③ 31.④ 32.③ 33.④ 34.② 35.④ 36.⑤ 37.④ 38.② 39.㉗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의미하고, ㉗가 꺼져 있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40.① 41.⑤ 42.③ 43.④ 44.② 45.⑤ 46.① 47.⑤ 48.상징적 의미-할머니의 모성애, 혈액의 정을 상징한다. 역할-구령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49.⑤ 50.④ 51.④ 52.③ 53.⑤ 54.⑤ 55.② 56.무속 신앙을 믿는 할머니는 구령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해 즐기고,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위로하고 달래서 배웅한다. 이 사건을 통해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된다.

**2-(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② 2.④ 3.⑤ 4.② 5.③ 6.④ 7.⑤ 8.④ 9.④ 10.③ 11.③ 12.② 13.③ 14.④ 15.⑤ 16.④ 17.① 18.④ 19.④ 20.② 21.② 22.생각이 바뀌기 전에 집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이다. 생각이 바뀐 후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다. 23.⑤ 24.⑤ 25.㉗-C.U. ㉗-인서트(Ins.), ㉗-내레이션 26.② 27.③ 28.④ 29.⑤ 30.두 갈래 모두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모두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31.④ 32.① 33.④ 34.② 35.③ 36.신을 구성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한다.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제시한다. 시유(C.U.)와 같이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37.① 38.② 39.④ 40.④ 41.⑤ 42.(1)몽타주 (2)긴밀성이 높아진다.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43.③ 44.②

**2-(4) 한 그루 나무처럼**

1.① 2.③ 3.⑤ 4.④ 5.② 6.④ 7.우주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참나무를 우주나무로 삼은 이유는 '나'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참나무를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8.⑤ 9.③ 10.④ 11.② 12.⑤ 13.① 14.⑤ 15.④ 16.② 17.⑤ 18.⑤ 19.⑤ 20.① 21.③ 22.① 23.⑤ 24.③ 25.④ 26.⑤ 27.⑤ 28.⑤ 29.④ 30.⑤ 31.③ 32. (1)장도리로 참

나무에 박혀 있던 녹슨 대못을 빼내어 주었다. (2)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33.④ 34.④ 35.①

**3-(1)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1.② 2.① 3.⑤ 4.② 5.① 6.④ 7.⑤ 8.③ 9.⑤ 10.② 11.③ 12.⑤ 13.② 14.⑤ 15.① 16.② 17.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② 19.① 20.③ 21.① 22.⑤ 23.⑤ 24.② 25.① 26.③ 27.② 28.⑤ 29.(가)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0.① 31.④ 32.③ 33.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적절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34.① 35.④ 36.③ 37.⑤ 38.④

**3-(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1.③ 2.④ 3.④ 4.㉗-한 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㉗-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강사의 연주 지도를 받으며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5.④ 6.③ 7.④ 8.⑤ 9.① 10.③ 11.㉗-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㉗-대안 제시 및 상호 검토하기 12.④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② 19.① 20.④ 21.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22.③ 23.② 24.① 25.④ 26.③ 27.재민은 주말 네 시 이후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는 대신 주중 사 일 동안 원하는 시간대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28.① 29.④ 30.④ 31.② 32.④

**4-(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캔따] 8. ⑤ 9.① 10.④ 11.② 12.㉗ [달근] ㉗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㉗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3. ②

- ㄴ. 잊힐 리야는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한 설의적 표현임
- ㄷ. 규칙적인 반복은 형태적인 안정감을 줌
- ㄹ. 장소를 나타내는 말끼리 어울려 호응함
- 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지 정경들을 연결하는 것은 아님
- ㄴ. 차마는 자조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응, 헛갈리지 마!◀

-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낯을 비웃는 태도.
-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4. ①

- ②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나와 친밀감을 드러냄 ③ 뒷마루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구지람이 닿을 수 없는 곳임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나에게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냄 ⑤ 거울은 뒷마루의 비유적 표현이며 화자의

유년 시절 회상의 매개체는 거울이 아닌, 뒷마루임

5. ⑤

- ▶시는 주관적 형상화를 특징으로 하기에 객관적으로 드러낸다는 설명은 잘못됨
- ① '가지취의 내음새'가 후각적 이미지에 해당
- ③ 현재→과거 회상의 역순행적 구성임

▶넣어둬, 패턴 공략◀

- 국어 시험에서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를 구별 판단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 \*객관적(있는 그대로)-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
- \*주관적-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6. ⑤

- ▶산 평의 울음은 여인의 울음에 해당
- ① 청각의 시각화임 ② 어린 시절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나타냄 ③ 삶의 흔적을 나타냄 ④ 도라지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딸이 도라지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 공감각 ]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 복합 감각 ]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7. ④

-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님. '사철 밭 벗은 아내'는 고생을 나타냄